

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

일시	2024. 7. 11.(목) 11:30	장소	의회 1층 다목적회의실
참석	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 4명 (총 7명 중 4명 참석, 3명 불참)		
회의 내용	2024년 단양군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		
근거 법령	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부위원장: 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7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에 심의한 ‘2024년 단양군의회 공무국외연수’의 결과 보고를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간사는 ‘2024년 단양군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에 대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 사: 위원회 간사 의정팀장 이재길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지난 5월에 실시한 2024년 단양군의회 공무국의 연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결 사항은 아니고 보고 사항입니다. 이렇게 다녀왔다는 내용들을 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의 연수 개요입니다. 연수 국가는 지난번 심의 때의 내용처럼 호주, 뉴질랜드를 다녀왔고, 목적은 지방의회의 운영 방식 비교 분석과 도시 정책 모범 사회를 벤치마킹하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 복지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선진 복지시설을 견학, 그 밖에 지역 특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주요 관광시설과 도시 기반시설 비교 시찰이 되겠습니다. 연수 기간은 5월 11일부터 18일까지 6박 8일입니다. 연수 인원은 의원 7명을 포함해서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수 일정과 연수 국가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공식 기관 방문 활동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식 기관으로 5월 14일 컴버랜드시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내용은 시의회 운영 방식에 대한 비교 검토 사항입니다. 크게 가장 크게 차이가 났던 점은 단양군의회나 대한민국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기관 분리형, 그러니까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는 형태라면 여기는 기관 통합형, 시의회 의장이 이제 집행부의 수장이 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주민들의 의견들이 의정이나 군정에 반영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담당 시 의원별로 하나의 섹터를 맡아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의견을 군정에 되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우수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장점일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시사점 중 하나로 회기 중에 주민들한테 발언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정치 참여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민 국민 제안이라든지 아니면 청원이라든지 그리고 조례 입법을 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들이 있지만 발언권 자체를 부여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도입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견을 받았었고요. 그 밖에도 확실히 호주가 선진국이다 보니까 정책 시작부터 끝, 그리고 다시 피드백시키는 환류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의 의견들이 정

책에 반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사점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공식 방문 두 번째 기관인 펠리스의회를 방문했는데요. 이곳은 도시재생 정책의 모범 사례를 위해 방문하게 됐습니다. 모범 정책 중에 하나가 김스 스트리트 휴양지구라고, 쓰레기 매립 공간을 휴양 공간으로 만든 선진 사례가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오래된 매립시설을 활용해서 휴양 시설로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선진 사례를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도시재생 정책에 모범 사례 중에 하나로 경찰 벽장을 개조한 사업이 있습니다. 경찰 별장이 굉장히 오래돼서 문화재 형태로 관리되고 있었는데 이거를 문화재로써 보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식 레스토랑으로 변모시켜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관내에 굉장히 많은 문화재들이 있는데 단순히 보존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이것을 현대식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의미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럽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대식으로 바꿔서 현실에 맞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곳에서 이렇게 오래된 건물을 활용하는 것을 배우고 와서 저희도 오래된 빈 집이라든지 그런 부지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접목 방안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타카니니 노인 요양원을 다녀왔는데요. 그곳의 현장 둘러보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곳

의 특징이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를 직접 고용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호사가 항상 상주하면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담당 간호사 같은 맞춤형 돌봄 서비스도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상주하는 주요 인력들의 고용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지는 굉장한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영세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라든지 인건비 문제 때문에 자꾸 바꾸면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하는 인력들이 고용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 근속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시사점도 갖고 있었습니다. 14페이지를 보면은 이곳은 단순히 노인 요양시설이 단순히 그냥 케어만 하는 게 아니라 맞춤형 치매 돌봄 서비스로 전담 간호사가 있고 환자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인데 특히 단양 같은 경우는 연세 많으신 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의미있는 시사점을 가지지 않나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페이지 관광지 도시 기반시설 비교 시설 내용을 둘러보면은 이제 블루마운티스 이제 국립공원이라는 데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이제 생태 체험이라든지 케이블카 보면서, 저희가 지금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지금 신청해가지고 현지 답사단도 이제 얼마 전에 다녀갔고 저희도 아주 유력한 것으로 지금 등재될 수 있을 거

라고 유력하게 지금 판단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생태 관광에다가 트래킹이라든지 하이킹 다양한 진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되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사실은 단양군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이 지금 2개소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보존 국립공원 하면은 이제 너무 보존에만 치우치는 형태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점점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좀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사점을 얻고 왔던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8페이지 넘어가면요. 저희 시드니 둘러보면서 다녀오시라고 했던 오페라하우스도 한번 보시고 보고 그리고 이제 그 근처에 있는 달링하버라든지 항구도 이렇게 둘러보고 왔었는데요. 다녀오셨던 분들이 오페라하우스 보시면 다 하나같이 그랬던 게 이런 랜드마크가 정말 의미를 가지는구나 이제 지역에 그런 랜드마크 하나 만들어서 이 랜드마크가 가지는 어떠한 지역의 상징성, 어떤 대표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가지고 우리도 그런 어떤 랜드마크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랜드마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들 의원님들이 공감하시고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달링하버라고 있는데 선착장 운영을 가보니까 선착장별 노선을 이용해가지고 선상투어라든지 그리고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이 시스템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양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단양강이 이제 수

중보를 막으면서 지금 유람선도 떠 있고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고하면 주요 관광지를 지금 연결하는 어떤 운송 수단으로 개념을 한다 그러면 지금 관광처는 시내에 굉장히 차가 많이 막히는데 그걸 또 분산시킬 수 있는 어떤 효과 그리고 그밖에 다양한 새로운 볼거리죠. 새로운 이동거리가 볼거리면서 이동거리가 계속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많이 좀 보고 왔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로토루아 수목원을 다녀왔는데 레드우드 수목원이라든지 마오리 온천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왔었는데요. 레드우드 수목원 같은 경우는 이제 트리워크라고 그래가지고 나무와 나무 기둥 사이에 산책로를 만들어놨더라고요. 보면서 굉장히 좀 색다르게 좀 둘러볼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놓고 특히 나이트 라이츠라는 야간 경관 조명을 굉장히 잘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둘러보면서 단양도 사실은 저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거는 관광객들을 얼마나 단양에 더 길게 머물게 하는 방식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야간 관광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하룻밤 자고 가게 하는 이게 관광객들이 당일로 가는 거하고 1박을 하고 가는 거하고의 어떤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하룻밤 잘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들 그것들을 이런 수목원들에서 같이 만들어줘서 우리도 지금 대강 쪽에 이렇게 수목원이라든지 도립 수목원 그리고 단양 수목원 같은 이런 것들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 좀 접목시킬 만한 방안이 아닌 가라는 지혜를 얻고 왔습니다. 그리고 와카레와레와 마오 이 민속촌 보면서 저희가 대강에 온천에 대한 개발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온천도 온천이지만 이 온천을 활용한 다양한 이제 지역 문화와 결합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대강 쪽에 한지라든지 그리고 방곡도에촌도 바로 붙어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접목시켜가지고 벨트화 묶는 사업들이 사실은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나 좀 시설 사용을 좀 둘러보고 왔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 25페이지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의원님들이 갔다 왔던 것들 그리고 이 내용들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갔다 온 내용만 한 120페이지가 넘고요. 그리고 이제 검토 보고서를 써서 이제 갔다 왔던 느낀 점들 연수 결과보고 120페이지까지 넘고 이것까지 포함한 150페이지 분량이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 일일이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양이 많고 그리고 저도 현장 직접 본 건 아니고 이렇게 내용이 주요 내용이였다. 그리고 본회의에 대표로 김영길 의원님이 보고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혹시라도 기회가 되신다면 보신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느끼셨고 이렇게 다녀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접목돼 나가겠다는 방향까지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봐주시거나 아니면은 홈페이지에 있는 의원님들 관심 있게 잠

깐 둘러보시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라든지 고민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것까지 혹시 시간 나시면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예.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세하게 잘 설명해주셨네요.

장성숙 위원님 이렇게 좀 느끼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범 위원님도 좀 해주시고.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좋은 보고서 가지고 단양에 접목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양에 맞는 어떤 그런 것, 도담삼봉이라든지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 관광지역인데, 앞으로 우리는 관광으로 먹고 살 겁니다. 미래의 먹거리나. 그래서 의원님들이 해외 연수 통해 가지고 이렇게 크게 보셨다는 거는 참 정말 고마운 일이고 그래서

작은 일도 하나하나 이렇게 실천해 가면서 뭔가 하고 있는데 힘을 합쳐가지고 작지만은 그래도 뭔가 단양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관광을 위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 이종범: 간사님이 이번에 동행하신 건가요?

- 간 사: 아니요.

- 이종범: 동행 안 하셨는데 내용을 잘 아시네요.

- 간 사: 이제 보고드려야 되니까 보고서 만드셨던 내용들하고 한번 쪽 읽어보면서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던 내용들을 이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종범: 실질적으로 김혜숙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네요.

- 김혜숙: 네. 저는 같이 참여했던 의원으로서 사실 저희 의원님들이 이렇게 연수를 가고 할 때는 굉장히 그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다녀오면 의원님들이 A4 용지 10장 이상 보고 느낀 점을 숙제를 내줍니다. 그래서 가서 보고 느끼는 점, 앞으로 배워야 될 점, 이런 부분들을 갔다 오면 A4 10장 이상 보고서 식으로 작성을 해서 내다보니까 의원님들이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 국민들께서는 의원들이 여행 간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저희들은 어쨌든 주어진 임무가 있다 보니까 여행이라는 시선보다는 보고서를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일반 여행 가는 분들에 비해서 이게 보고 느끼는 시선들이 좀 달리 느껴집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 가면 메모를 해야 되고 이런 이런 부분은 단양에 가서 어떻게 접목을 좀 시켜야 되고 이렇게 늘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뉴스에 보셔서 알겠지만

가끔 의원들 어디 무슨 외유성. 저희는 이제 상당히 부담을 지금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농담과 비슷하게 이거 연수 보고서 쓰기 힘들어서 다음부터는 연수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오려고 저희 많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 좀 국민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끔은 이 왜곡돼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기도 합니다.

- 이종범: 지금 이제 지방의회 해외 연수 현실이에요. 의원님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도 선진 어떤 문화 선정 방식을 배우고 또 거기서 벤치마킹하고 이런 거는 더 열심히 하는데 일반 시각들은 또 아직까지는 해외 연수 놀러가려고 그러지 그게 또 이게 주류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유도하도록 행동하신 분들이 있어요. 원래 사람이 선입견이나 이런 게 한 번 각인이 되면 개선하기 그래요.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서도 많이 내고 또 개별 보고서를 아까 이 부분도 따로 내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가기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의원님들 가실 때 가능하면은 미리 전문 분야를 구분해서 가시라, 그런 게 전문화하기가 좋다. 다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이래 보면 상당히 좋은 느낀 점하고 또 대안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하나라도 군정에 반영돼 가지고 군민들한테 실행이 되면은 이게 시작이 되는데 또 이렇게 보고하고 아무리 좋

은 글 몇 페이지를 써가지고 하더라도 시간 지나면 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다른 거 기억 안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면서 저도 이제 보면 이게 물론 해외 사례도 있지만 국내 사례도 많은데 이런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도 가능하면 집행부에 요구도 할 수 있잖아요. 첫째 김스 스트리트 가셨다는데 우리나라도 쓰레기 재활용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거는 벤치마킹할 때 단양에서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거든요. 단양이 주로 광산 지구예요. 광산지구는 폐광이 많아요. 지금은 그래도 오래 가는데 앞으로도 폐광이 많이 발생될 거고 단양에 있는 폐광들을 보통 광산을 하게 되면은 적치를 해요. 이거 저기 해서 복구를 잘하시잖아요. 다시 복구를 한다 해가지고 원상복귀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잘해도 그런 무모하게 그럴 것이 아니라 어떤 좋은 예가 이제 골프장에 했던 것도 좋은 예고. 또 강원도 가면 휴양지 가보셨나요? 거기 해변까지 안 가도 강원도 가면은 폐광산 이용해가지고 휴광산인데 사시사철 꽃 심고 이래가지고 석회 폐광산을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단양에 맞도록 여러 가지 평가가 있으면 무조건 기업들이 복구만 하라고 하지 말고 여러 대안을 갖다가 이런 방향으로, 또 안 되면 지원을 해주도록 해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내는 게 앞으로 필요한 게 있고 여기 갖다가 어떤 시적으로 또 그런 데 한 두 개인데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 태양광 설치로 해도 되고 그 원상 복귀 개념으로 또 유원지나 이런 쪽

으로 가게 되고 충주 같은 데 가보면 폐광산 가서 보면 터널 안에 해놓은 거 보셨죠?

- 김혜숙: 강원도 같은 경우는 폐광을 활용해서 박물관
- 이종범: 박물관은 이제 하도 옛날 일이라 하다 보니까 그건 좀 주민들 이용률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공원화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면 굉장히 많이 들고.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특히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경찰별장 개조 관련해서 단양에 지금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고 이리다 보면 대개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내부 이동이 많아요. 단양의 개인 주택 있죠? 개인 주택이 1인 가구나 노인 가구, 비어 있거나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되게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철쭉제를 하거나 어떤 행사를 하거나 하면은 토요일, 일요일에 단양에 숙소가 없어요. 숙박할 데가. 그래가지고 인근 제천이나 이런 데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앞으로 리조트 이런 사업이 있으면 더 나아지겠지만, 어쨌든 숙박 시설이 급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홈스테이식으로 활용해가지고 어르신들 집에 방이 한두 개 남으면은 용돈도 벌고 단양에 어떤 숙박이나 이런 부분도 일시적인 해소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활용하는 방안으로 의논하시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다가. 수요가 증가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골목 상권도 살아나고 그런 게 좀 좋지 않겠나 그것도 정리를 해줬으면 어떤가 싶고요.

아까 노인 요양원 갔다 오셨대요. 여기는 민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간호사가 치료하는 두 가지가 되네요. 우리나라는 치료하는 병원이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생활에 역할을 하는 요양 부분이 있죠. 민간이 한다는 거는 사실 수익성에서 항상 좀 있어요. 여기서 민간이 이렇게 훌륭하게 하고 있는데 어떤 정부나 이런 시책, 어떤 보조나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돼 있는지.

- 김혜숙: 보조 안 하고 순수 민간 자본으로
- 이종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 김혜숙: 이 입소비를 많이 내는데 그게 정부 보조가 되더라고요. 그거는 연금 제도가 또 잘 돼 있어가지고
- 이종범: 아, 개인이 부담은 하는데 정부에서 연금 형태로
- 김혜숙: 연금이 워낙에 많이 잘 되어있어서 나오는 연금만으로도
- 이종범: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이 하는 거는 돈이거든요. 정부의 별도로 보조업체 같은 경우는 또 개인의 부담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연금이나 이런 부분이 지

급 혜택을 받는 부분있고 안받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개인 부담을 늘리면 입소해가지고 충분히 여건을 활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 김혜숙: 그래서 여기는 제가 또 신기했던 게 거의 다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입소하시는 분들 비용이 거의 연금으로 다 대체가 되니까 이분들이 부담 없이 그리고 이제 요양원을 아무나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좀 자본이 많은 분들이 요양원을 개원을 하거나 요양원이 허가를 내게 해서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저희가 갔던 이 요양원 하나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몇 군데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도 이제 이 비용을 입소 비용을 어떻게 다 충당을 하나 했더니 대부분 연금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65세 이상이 넘어가면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연금을 받는 걸로 설명을 들었거든요.
- 이종범: 300만원 하면 자기 생활 여건 되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300만 원 정도 하고 요양원 입소하면은 생활이 좋은 데 많아요. 지금 그런 데가 있어요.
- 김혜숙: 그리고 이제 어쨌든 땅이 넓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요양원이 연립식인데 여기는 거의 단독주택 형식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환경이 문만 열면 정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 산책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시설이 굉장

장히 저는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보다 몇 배가 큰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요양원에서 느낀 점들이 일단 연금 제도가 잘 돼 있어서 노후에 생활하는 데 아무 걱정이.

- 장성숙: 의원님들이나 누구 개인이나 직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가서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많이 생각하고 그런 거를 갖다가 단양에 접목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게 하나 정말 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앞으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합니다.
- 이종범: 다음에 시간 되시면 의원님들하고 간담회식으로 얘기 나눌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네. 모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